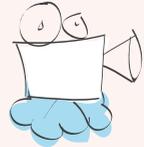


2018년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 **방방** 프로젝트

꿈 펼쳐 DREAM



청소년의 일과 삶!
지역에서 내_일을 그리다



주관 **덕암고 YMCA**

지원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전주 YMCA**

목차

참가자이야기	3
동아리 소개	4
찾아가는 활동	
1) 김제의 청년농부 강보람 : 최다경	5
2) 서울기행 : 인생워크숍	17
3) 도슨트의 아이돌 김찬용 : 송은혜	22
4) 김제제일 사회복지관 최병균 사회복지사 : 박유현	32
5) 타로로 이야기하는 자아성찰워크숍 : 신유라, 김소영	37

발행일 : 2019년 1월

담당 : 전주YMCA 손유주영 간사

참여자기야기

“ 최다경 덕암고YMCA 동아리 1기 대표

2018년 덕암고YMCA의 내일찾기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추억을 쌓게 되어 너무 뿌듯하고 기쁩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이 느낌, 열정 그대로 가지면서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덕암고YMCA 선생님,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박유현 덕암고YMCA 동아리 1기 부대표

저는 덕암고등학교 2학년 박유현입니다 저의 꿈은 경찰인데요 남을 돕는 일을 좋아해서 저는 항상 봉사를 즐겨합니다. 이번에 내일찾기 프로젝트로 진행한 도시락봉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YMCA를 통해서 많은 기회를 얻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 신유라 덕암고YMCA 동아리 1기 총무

2018년에 YMCA에서 총무를 맡으며 그동안에 하지 못하였던 색다른 경험을 한 것 같아 좋았습니다.



송은혜 덕암고YMCA 동아리 1기 서기

레드벨벳과 신서유기를 좋아합니다. 2018년에 처음으로 YMCA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며 여러 활동을 한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시간도 부족했고 여러모로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성장하는 덕암고YMCA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소영 덕암고YMCA 동아리 1기 일정디렉터

EXO를 좋아하는 저는 김소영입니다! 2018년에 김제 덕암고 YMCA로 활동하면서 YMCA가 아니었다면 하지 못했을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인생워크숍은 '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동아리 소개



김제 덕암고 YMCA를 만들게 된 목적

동아리원들 개개인의 꿈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찾고 경험하여 그 꿈을 다시 지역에 드린다.

이번 내일찾기프로젝트 ‘꿈, 펼쳐DREAM’은 무엇인가.

자신의 꿈에 가깝고 또는 꿈을 이룬 분을 직접 찾아가보는 체험활동이다.

1기 멤버

김소영, 박유현, 신유라, 송은혜, 최다경

찾아가는 활동 1

- 일 시 : 2018년 11월 28일(수) 오후 5시~7시
- 참여자 : 최다경, 김소영, 신유라, 박유현
- 장 소 : 전북 김제 청년농부 강보람님의 고구마 농장
- 활 동 : 강보람님 방문 인터뷰



스타농부 강보람

대학 졸업 후 본격적으로 농사에 뛰어들면서 '강보람 고구마'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자 홈페이지와 블로그도 개설했습니다. 블로그로 대박 난 농부들이 많았기에 충분히 저희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는 생각보다 녹록치 않았고, 고심 끝에 '강보람 고구마'라는 브랜드에 걸맞은 상자를 제작해 직접 경매장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당시 10kg에 15000원정도 받던 고구마가 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6년 7월, 서울도매시장에서 전국 최고가 고구마로 저희 고구마가 낙찰 됐습니다. 그 소식을 전화로 받은 저와 가족들은 일순간 울음이 터졌습니다. 농사를 시작하지 3년만에 쾌거였습니다. 최근까지도 '강보람 고구마'는 높은 가격으로 경매시장에서 거래 됐습니다. 정말 입이 귀에 걸린다는 말이 뭇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흙수저도 아닌 '빛수저'였던 저는 어느 정도 빚을 갚고 진짜 흙 때문에 먹고사는 '당당한 흙수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활동1

강보라 님 섭외 전, 자기소개서와 과정

안녕하세요 강보라님!

저는 김제 덕암고 YMCA 동아리 회장 1학년 최다경입니다.

저희 YMCA동아리는 동아리원들 개개인의 꿈을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 찾고 경험하여 그 꿈을 다시 지역에 드린다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활동하는 프로젝트인 사람책 <꿈, 펼쳐DREAM> 프로젝트는 자신의 꿈에 가깝고 또는 꿈을 이룬 분을 직접 찾아가보는 체험활동입니다.

이번에 덕암고 YMCA에서 처음 시작하는 프로젝트이고, 첫번째로 제가 강보라님을 직접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희 집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 직업에 관심이 생겼고 지금은 농부라는 꿈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들 말고는 농업이라는 분야에 정보 등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저는 강보라님을 보면서 더욱 제가 하고 싶은 것을 그려보면서 구체화 시키게 되었습니다. 저도 농업 안에서 여러가지 일을 해보고 싶고 그 부분들에서 제가 꿈꾸고 있는 일들을 먼저 하신 분이므로써 걱치는 부분이 많이 배울점이 많다고 생각했던 인생 롤모델이셔서 평소에 정말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거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11월 중순쯤으로 최대한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을때 만나 보고 싶습니다.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참고 기사 자료

jobsN 작성일자2018.10.30.

5억 빚 때문에 농수산대학 가야만 했던 고3 여고생, 지금은...
고구마 농사로 이룬 꿈

5억 빛 때문에 농수산대학 가야만 했던 고3 여고생, 지금은...고구마 농사로 이룬 꿈

강보람 씨가 고구마 농사를 시작한 건 스물한 살 때다. 20여 년 전 귀농한 부모님이 김제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맛은 좋으나 판로를 잡지 못해 헐값에 넘기기 일쑤였단다. 또 수확부터 보관까지 농사 관련 지식이 없어 실패가 이어졌다. 옆친 데 옆친 격으로 겨우내 고구마를 보관한 하우스가 폭설에 무너져 내리며 5억 원의 빛을 저야 했다. 고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어머니는 집안의 맏이인 그를 얹혀놓고 국비 지원이 되는 한국농수산대학 진학을 권했다.

“농부가 되겠다고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었어요.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요’ 라고 답했죠. 농업으로 집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농사를 이어가지고 하니 왜 아니겠어요. 어머니는 ‘농업에 희망은 있지만, 우리가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해 어려운 거다. 네가 농업 경영을 배워서 이끌어 달라’ 고 하셨어요.”

꿀고구마로 대박

부모님의 권유로 들어선 길이지만 농업으로 돌린 발길은 지금의 자신을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됐다.

“재학 중 농촌진흥청 고구마연구소에서 실습하다가 ‘꿀고구마’ 를 알게 됐어요. 맛도 좋고 재배가 쉽다기에 부모님을 설득해 밭에 심었죠. 이듬해에 꿀고구마 열풍이 불면서 많은 수익을 올렸어요. 빛을 다 갚을 정도로요. 그걸 지켜보며 농업에서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됐습니다.”

졸업만 하면 바로 농부가 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여자가 무슨 농사야?’ ‘공부를 못했나 보다’ ‘취업이 안 됐나 봐’ 등 주변의 비난이 등에 화살처럼 꽂혔다. 흔들리는 그를 세운 건 부모님이었다. 두문불출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를 고민한 끝에 브랜드를 만들기로 했다. 1년여의 고민 끝에 ‘아빠와 딸이 함께하는 고구마 농장’ 이라는 의미를 담아 ‘강보람고구마’ 를 만들었다.

‘강보람고구마’ 를 세상에 널리 알린 건 TV를 통해서다. 2015년, 그가 블로그에 올리는 농사일지를 보고 젊은 처녀가 농사를 짓는 게 신기하다며 섭외 전화가 왔고, 토크쇼 형식의 공중파 아침 생방송에 가족 모두가 출연했다. 어리바리 토크쇼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그의 가족은 6000여 건의 주문 전화를 받았다. 시청률이 10% 가까이 나오며 말 그대로 ‘대박’ 을 터트린 것. 이후에도 각종 TV 출연 요청이 쏟아졌고 나가는 방송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스타 농부’ 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TV에서 얼굴을 알리니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꿀고구마 농사는 매년 성장해 2015년 4억 원, 2016년 6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6년에는 가락시장에서 최고 경매가를 찍었고, 농협중앙회에서 개최한 농산물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해 1등을 차지했다. 2017년에는 수출 길도 열렸다. 그는 “젊은이가 열심히 산다고 주변에서 도와주신 덕분” 이라며 웃는다.

“방송이나 기사에서 매출이 억대라고 소개하니까 부자인 줄 알아요. 막상 제가 사는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죠. 농업은 돈을 좇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아요. 지독한 가난을 겪어봤고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울어도 봤어요.”

찾아가는 활동1

그의 말을 듣고 주변을 둘러보니 그가 사는 벽돌집은 칙칙산중 홀로 선 단층 건물에 호사로울 것 하나 없이 단출했다. 남들은 역대 매출이라고 하면 외제 차 끌고 다니며 돈깨나 쓰는 줄 알겠지만, 그에게는 어렵없는 얘기다. 매해 들이는 시설비만 수억 원대. 아직 벌이보다 써야 할 돈이 더 많다.

지금의 그는 단단해 보이지만 어려서는 큰 병을 오래 앓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부모님이 합성피혁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그 때문인지 태어날 때부터 악성 아토피로 고생했어요. 병원에 입원하느라 학교생활도 제대로 못 했죠.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걸려도 폐렴으로 번졌어요. 한번은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해라’ 할 정도로 앓았죠. 전국 방방곡곡 좋다는 병원에 다녀 보았지만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가라’는 답변이었어요. 때마침 IMF로 공장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부모님이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귀농하게 됐습니다.”

강보람 씨는 어릴 적 꿈 많은 소녀였다. 책을 읽으며 작가를 꿈꿨고 TV에 나오는 화려한 연예인도 꿈꿨다. 선생님이나 사업가의 미래도 머리에 그려봤다.

선생님이자 연예인, 작가이자 크리에이터

“농업 안에서 제 꿈을 다 이뤘어요. 농업을 세상에 알리려 강단에 섰으니 선생님이고,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으니 연예인이고, 글짓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으며 작가의 꿈을 이뤘죠. 리포터도 되고 싶었는데, 농업 크리에이터로 1인 방송을 시작하면서 그 꿈도 이뤘어요. 농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막노동꾼이 아니에요. 만능 직업인입니다. 농업경영, 마케팅, 회계, 디자인, 작가, 강사, 크리에이터 등 많은 직업을 포용해요.”

꿈을 이루기 위해 5년 차 농부의 하루는 바쁘다. 새벽부터 일어나 농장에 나가 모종을 심거나 트랙터로 땅을 고르고, 수확기에는 일손을 도와 고구마를 캔다. 해 질 무렵 집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일의 시작이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보람찬농부’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 동영상 촬영하고 콘텐츠를 편집한다. 또 1년 중 고구마를 종식해 수확하는 시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간을 배움에 몰두하고 있다. 더 멋진 농부가 되기 위해 지난해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올해부터 무역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누군가가 저에게 직업을 묻는다면 당당하게 ‘농부’라고 답해요. 이 일을 사랑하니까. 후회한 적 없어요. 이 안에서 꿈도 이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 기대됩니다.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자부심으로 농사를 짓는 것, 그게 바로 농부의 사명입니다. 우리 농부들 그리고 농촌이 잘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글 · 사진 jobsN 서경리 기자

jobarajob@naver.com

“ 농부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직업 ”



어렸을 때부터 꿈이 농부였다.

어렸을 때 꿈은 농부가 아니었어요. 농부가 되겠다고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었어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리고 집이 농업으로 무너졌는데 농사를 이어가지고 하는데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여자가 무슨 농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농업 경영을 배워서 이끌어 달라고 하셨죠.

농부가 힘든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권유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 하는지.

그게 정말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농사라는 게 잘 될 때는 정말 잘 되고 안 될 때는 또 잘 안 되니까, 그런데 부모님은 그래도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또 그 당시에 빚은 많은데 한국농수산대학교가 국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국비로 돌아가는 학교여서 부모님 입장에서 대학은 보내고 싶은데,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교는 당장 등록금도 부담스럽기도 했고 대학은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크셔서 그랬다고 하세요.

그 마음이 이해가 가서 원망하지는 않아요.

우리들의 활동1

왜 농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까.

고등학생 때 야자시간에 고구마를 조금씩 싸가지고 다니면 저희 집 고구마가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점점 많이 싸가지고 다니고 나중에는 가방도 없이 손을 들고 간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맛있고 인기도 많은 우리집 고구마가 왜 부모님은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팔지? 그래서 그때 팔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또 추진력이 강해서 쇼핑몰을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3때 세무서를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어요. 그게 나중에 알게 됐는데 한국농수산대학교에 들어갈 때 준비했었던 것들을 모은 계획서를 냈었는데 그걸로 합격 1순위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하하

농사를 직접 해보면서 농부라는 직업을 추천하는지.

처음에는 정말 하면서 농부 너무 좋다고 농부하시라고 추천했어요. 저는 농업 안에서 하고 싶은 꿈들은 다 이뤘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 농부를 하고 싶은지 먼저 물어봐요. 돈을 번다고 농부가 되겠다고 말한다면 그건 유통이나 그쪽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돈으로 성공했다고 한다면 성공하지 않은 거라고 아직도 말해요. 한 해가 지날수록 농사는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농부라는 직업이 정말 많이 고민해보고 농부로서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강보람 고구마 정말 맛있엉 ㅠㅠ

“고 3때 사업자등록증 만들어 쇼핑몰 준비 그 덕분에 대학합격도”

고구마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준 것을 봤다. 그것은 어디서 나온 방법인가.

그 방법은 부모님이 20년 동안 농사지으시면서 실패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자신만의 방식을 찾은 것을 부모님의 생각과 제 생각을 섞어서 제가 글로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로지 제 생각은 아니예요. 그리고 또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저는 전국의 농산물들을 인터넷으로 시켜서 다 택배로 사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케팅, 디자인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씩 다 봐요. 그런데 정말 다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저만의 개성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시켜 먹어보고, 배달, 쇼핑몰의 문제점들을 다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런 방법이 나온 것 같아요.

스타농부 강보람

보람찬 고구마의 뜻이 ‘보람차다’의 뜻으로 다들 알고 있다. 그 뜻이 맞는 건가?

다들 그 뜻으로 알고 있어요. 그 뜻도 있긴 해요. 그런데 두 가지의 의미로 이름을 제작을 한 거예요. 제 이름이 ‘보람’이다 보니까 ‘보람을 발로 찬 고구마’라는 의미도 있어요.

요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

사실 해외에 나가면 일본제품이 최고로 취급받고 있어서 일본제품이 우리나라의 10배 정도의 가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고구마를 팔면서 저희 고구마가 일본제품에 뒤쳐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돈을 낮춰 팔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일본시장을 이겨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서 최고로 좋은 고구마를 재배해서 수출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예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농산물 진짜 좋다고 그래요. 배랑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맛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농산물에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데 어려운 것은 고구마 수출과정에 부패 때문에 국내에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지금 저도 그 부분에서 손해를 많이 보면서 정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고구마 너무 맛있고 잘 팔려서 홍콩시장에서는 일주일 안 되서 완판 되고, 또 5개국에서 납품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K-POP 열풍이 불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좋아져서 이런 부분에서 자부심이 있으니까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멘토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요즘에는 백종원 선생님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골목식당을 기사로만 보다가 얼마 전에 처음 봤는데 요리하는 사람들에게 애정가지고 다 알려주면서 골목 상권 살리려는 부분에서 인상 깊어서 저도 농업계의 백종원이 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에게 농업, 농부에 대해서 알려주고, 힘든 친구들 고민들도 들어주고 그러고 싶어요.

농부를 하면서 본인만의 멘토, 목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10년 계획을 세웠어요.

“친구들에게 농업에 대해 알려주는 농업계의 백종원 되고 싶어.”

우리들의 활동1



우린 오늘부터 강보람 언니라 부르기로 했다.

그 10년 계획의 일부를 조금 알려줄 수 있을까.

사실 10년 계획보다 더 빨리 자리를 잡았어요. 다들 계획을 세울 때 막연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 계획은 막연하게 세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5년 뒤에는 5억을 버는 농부가 될거야.', '10년 뒤에는 10억을 버는 농부가 될거야.'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제 목표의 큰 틀은 10억을 버는 농부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10억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씩 계획을 세웠어요.

농장 이름, 브랜드 계획, 판매방법, 판매타겟 등 하나씩 목표의 구체화를 차근차근 세웠는데 사실 현실은 정말 달랐죠. 계획은 정말 만족했는데 현실은 정말 많이 달랐어요. 하하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석사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 공부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다.

스타농부 강보람

농부라는 직업이 정말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열심히 부지런하게 농사만 잘 지으면 팔리던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은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마케팅, 유통, 판매 등 다 해야 되서 1인 기업이 되어야 해요. 만능으로 다 잘 해야 해요. 청년농부로서 모두 잘 하고 있지만 너무 어려워서 조금은 슬픈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전반적으로 알아야지 운영을 할 수 있고, 기업도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 배우려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또 모르고 안하는 것과 알고 안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무조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농부라는 직업은 공부를 못해도 된다는 인식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런 가독한 편견들을 깨부수고 싶어서 더 열심히 공부해요.

인터뷰, 신문이나 방송도 계속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있다.

농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언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식당은 언론

“농부는
공부를 못해도 된다는 편견
깨부수고 싶어서
더 열심히 공부하죠”

을 통해서 매출이 오르지만 농부는 인식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더 제 손이 닿는 한까지는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또 요즘 유명해진 중딩농부 한태웅 친구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데 그 친구를 통해서 농부를 꿈꾸는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연락이 될 때 그 친구에게도 될 수 있는 만큼 많이 나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 잘 한다.

아 그래요? 많이들 찾아오시고 많이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늘었죠.

그런데 저는 실패도 많이 했고, 지금도 뭐 실패도 하고 잘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은 제가 10번 넘어졌으면 한 5번만 넘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 말해주고 다녀요.

똑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다 알려주고 다니는 거 아닌가.

그것도 다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100명한테 알려줘도 성공하는 사람이 1명일 수도 있고, 100명 다 성공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해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본인의 역량이라고 말해요. 저도 성공한 사람들 강의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도 그 분들처럼 빨리 성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제 역량이니깐요. 하하

바쁠 때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될까.

정말 바쁠 때는 너무 바빠서 기상은 5시에 해요. 밭에서 일하고 7시에 끝나서 오면 블로그라던가 답변하고, 택배들 정리하고 그러면 12시, 다시 새

우리들의 활동1

벽 되고요.

혼자서 경영하다보니까 바쁠 때는 너무 바쁘고,
또 한가할 때는 쉬는 날이 별로 없어서 친구들 만
나기보다는 거의 집에서 쉬어요.

올해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생겨서 스케줄 조정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시간이 없다보니까 몸무게가 빠져가지
고 한약 먹고 다시 살찌우고 일하고, 하하.

친구들하고 놀 때는 주로 뭐하고 노는지.

워낙 집순이라서 친구들과하고 노는 거는 별로 뭐
없는 거 같아요.

근데 겨울이나 그때는 시간 내서 매년 해외도 꼭
나가서 선진지도 가보고, 농업관련해서 다 먹어
보고 고구마도 다 먹어보고 그런 힐링을 즐기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젊을 때 고생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조금 있어요. 그래도 저녁에는 또 괜찮아요. 아 게
임해요 게임! 하하

자신의 딜레마가 있을까.

그런 건 있어요. 여자니까 이뻐 보이고 싶고, 그래
서 빠진 게 이쁘긴 한데

일하려면 체력이 필요하니까 살을 다시 찌우면 옷
입을 때 또 태가 잘 안 나고요. 하하

농부냐 여자냐 딱, 그거죠. 기미 이런 것들도요.

살이 또 하얀 편이었는데 살도 많이 타니까 그래
서 지금도 관리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고구마는 무엇일까.

꿀고구마도 맛있고, 요즘에는 밤고구마가 맛있어

“계절별로
먹는 고구마
모두 맛있어요”

서요.

계절별로 먹으니까 흠.. 최애고구마는.. 근데 고구
마는 다 맛있는 거 같아요. 하하

고구마 심을 때는 직접 다 먹어보고 품종을 고르
는 건가.

맛아요. 그래서 2016년에는 수확을 했는데 맛이
없어서 전량 판매를 안했던 적이 있어요.

제 기준에 안 차면 아예 판매를 안 해요.

강보람의 인생책이 있을까.

인생책은 농업이랑 관련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파가지고 부모님이 귀농을 하신거라서 '지
선아, 사랑해'라고 그 책에서 긍정의 기운을 많이
얻었어요. 고등학생 때, 그때까지는 계속 인생책
이라고 생각했어요. 긍정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여성 농업인은 '홍쌍리' 여사님이라고 어
른들은 다들 아시는 매실명인이 계시는데,

선생님 책 중에 '인생은 파도가 쳐야 재밌제이'라
는 책이 있어요.

정말 눈물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이에요. 저보
다 100배 1000배 더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성공
한 1세대 여자 농업인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가 너무 재밌어서 두시간이 후다닥~

부자가 되실 거란 확신이 든다.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부자보다는 돈보다는 농업의 가치, 그리고 행복함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행복한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하기 힘든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말해주실 때 “저는 돈으로는 성공하지 않았지만 나는 행복으로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시간부자’라는 말이 유행하던데 ‘행복부자’인 것 같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가족이랑 같이 일하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요. 그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일하면서 트러블이 따로 없을까.

거의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역할을 나눠서 낮에는 제가 부모님께 일하는 걸 배우고, 밤에는 이제 제가 잘 할 수 있는 걸로 부모님과 같이 SNS 배우고, 이렇게 했더니 5년동안 트러블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고등학교 때는 엄마랑 정말 미친 듯이 싸웠어요. 하하

인터뷰를 마치고

인생 ‘롤모델’ 을 만나고 새로운 꿈을 키우다

담당기획 최다경글



늘 만나고 싶었지만 시도해보지 못했던 나의 롤모델
김제의 청년농부 강보람님을 만나기위해 첫 시작을 내가 먼저 스타트 했다.

인터뷰를 하게 된 ‘최다경’ 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김제 덕암고 YMCA의 회장으로 처음 시작하는 프로젝트의 처음을 장식했다.
집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부라는 직업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졌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농부의 길로 정
확하고 명확하게 빠져들게 되었다.
가족들 말고는 농업에 대해 정보를 받을 수 없기에 도움을 받을 곳도 없어서 많은 정보를 찾고 다녔다.
꿈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권유로 ‘강보람’ 의 인터뷰를 보게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고싶은 것을 그려
보면서 구체화시키는 것이 쉬워졌다. 농업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싶고 그 부분들이 겹치는 ‘강보람’ 을
인생 롤모델로 세워 배울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처음 인터뷰를 하기 전, 나의 미래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유명한 농
부 강보람 언니와의 만남이여서 많이 설레고 긴장도 많이 됐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뜻깊은 시간이 되어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시작으로, 그 후 미래의 길까지 내가 꿈꾸는 농부의 길로 먼저 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 됐다.
인터뷰를 하면서 강보람 언니가 말씀하신 것 중에 “농업 안에서 제 꿈을 다 이뤘어요. 농부는 많은 직업을 포용
해요” 라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다.
나도 직업의 꿈은 뚜렷하지만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꿈꾸는 시기라서 더 외당였다.
농부라는 직업이 나도 조그마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대학교는 쉽게 갈 수 없겠지만, 농부라는 직업이 하는 일은 체력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 쉽게 생각하지 않
았나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은 강보람언니와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 생각을 바꿔먹고, 마음도 다잡을 수 있었다.
자신이 겪는 힘들보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덜 힘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진짜 만나면서 잘 와닿아서 더 감사했다.
농부라는 직업을 꿈꾸면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주셨는데, 나도 꿈꾸는 걸로 끝이 아니라 알려주신
부분을 적용해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겠다고 생각했다.

- 1) SNS,블로그로 세상에 더 많은 농부들께 배우고 소통하며, 식물을 키워 성장일기를 쓴다.
- 2) 가족들의 농사일을 더 도와서 한해씩 농부의 마음, 농부의 모습이 더 잘 보일 수 있게 더욱 성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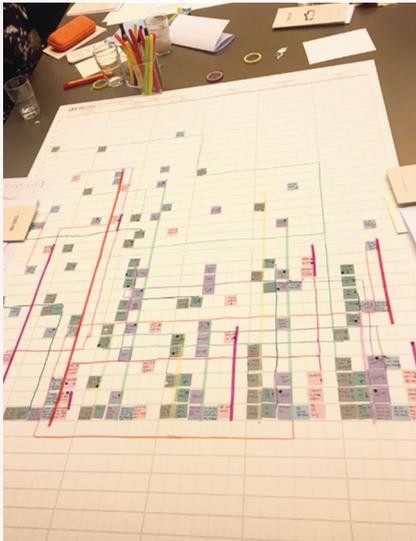
앞으로도 꾸준히 열정을 가지고 처음 마음 계속 가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고, 이번 기회를 통해 경험이 쌓였으니 다른 여러 분야의 농부님들을 개인적으로라도 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찾아가는 활동 2

- 일 시 : 2018년 12월 21일(금)~22일(토) / 1박2일
- 참여자 : 최다경, 송은혜, 신유라, 김소영
- 장 소 : 서울 (망원동, 서교동, 예술의 전당 등)
- 활 동 : 서울 기획 투어, 인생도서관 위트릭스 워크숍
'이매진 존레논전' 관람, 도슨트 김찬용 인터뷰

일과 삶 탐방여행

인생도서관 위트릭스 워크숍 - 인생, 일, 성찰



개인적으로 재미있었던 것은 자신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미래를
알다가도 모를 질문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꽤나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진행이나 구성,
질문이 자기개발 서적 느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키트를 채워나가는 활동과 말을 해가는 동안
예상치 못한 것들을 깨닫는 느낌입니다.
굳이 비유를 한다면
'새로운 길이나 비전을 제시한다' 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한다'는 쪽입니다.
특히 진로에 대해 배경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그간 자신이 재미있게 해온 일,
흥미를 가졌던 것과 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어떻게 밑거름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직업과 인생을 나누어 상상해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서울투어 일정표

시 간		내 용
12월 21일 금요일	16:30~18:40	학교앞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 익산역 이동 - 익산역 17:13 출발 → 용산역 18:33 도착
	18:40~20:00	용산역에서 저녁식사 숙소이동 - 로인홈게스트하우스/1호선 합정역 2번출구 (02-3144-3946 마포구 동교로 105)
	20:00~22:00	서울 기획투어 / 덕수궁 일대, 야간시장
	22:00~23:00	활동 회의, 간식
	23:00~	내일 일정 준비, 취침
12월 22일 토요일	07:30~09:00	아침식사, 짐챙기기, 출발준비, 이동
	09:00~11:00	망원동 문화비축기지 (서울 마포구 증산로 87) 또는 망원시장과 삼 둘러보기
	11:00~13:30	인생도서관 위트릭스 워크숍 - 인생, 일, 성찰 (서울 마포구 서교동 482-38)
	13:30~15:00	점심식사 예술의전당으로 이동
	15:00~17:30	한가람 미술관 '이매진 존레논 전시회' (50분) 도슨트 김찬용님과와의 인터뷰 (60분)
	17:30~18:00	고속버스터미널 이동
	18:00~22:00	저녁식사 서울 출발 → 김제, 전주 도착





드라마에서만 보던 서울시청 스के이트장 개장일에 갔건만 일찍 문을 닫았다. ㅠㅠ



그래서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도 마냥 신난다.

서울-일과 삶 탐방여행

김소영 존레논 전시회 인상적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존레논 전시회였다. 비틀즈라는 그룹과 노래는 조금 알고 있었지만 비틀즈의 멤버와 존레논의 연관관계는 잘 몰랐는데 김찬용 도슨트님이 해주시는 해설을 들으며 전시회를 관람하니 정말 전시를 제대로 즐겼다는 느낌을 받았고, 비틀즈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아무래도 지방에 살다보니 서울에 갈 일도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법도 몰랐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지하철과 버스 타는 법을 새로이 알아가서 너무 유익한 여행이었다고 생각한다. 1박 2일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의미있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



한가람 미술관 '이매진 존레논전'

신유라 다양한 경험 많이해 즐거워

비록 짧은 시간 일지라도 다양한 것들을 많이해서 좋았고 특히 담주위를 걸으며 다양한 사진을 찍어 추억을 남겨서 좋았다. 김찬용 도슨트님과 인터뷰를 녹취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이야기들이 기억에 남는다.



아침은 망원시장에서 간단히? 분식

최다경 인생도서관 자기성찰 기회

1박2일 짧은시간에 조금씩 일정이 바뀌기도 하고 뻘뻘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알차게 열심히 활동해서 뿌듯했다. 도착해서 돌담길을 걸으면서 함께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모습들을 밤에 잘 보고 와서 좋았다. 좋은 숙소에서 늦은 시간까지 속마음 얘기했던 것까지도 특별했다. 망원시장에 가서 핸드폰으로 티비화면으로 봤던 가게들을 직접보고 아침시장을 구경하면서 가볍게 군것질 했을 때도 정말 맛있었다. 인생도서관이 가장 인상 깊는데, 내가 혼자 하기에 힘든 자기성찰과 계획들을 도움을 받아서 활동함으로써 후에 내가 생각을 하면 다시 힘이 되는 원동력이 될 것 같았다. 도움이 가장 많이 되었던 활동이어서 다음에도 또 계획해서 오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 존레논 전시회를 가기전에 조사를 해봤을 때는 어려워서 기대를 안했었는데, 김찬용 도슨트님의 재치 있는 설명으로 전시회에 푹 빠져들 수 있었다. 인터뷰를 하면서도 바쁜시간에도 성의껏 대답해주려고 해주셔서 감사했고 진로가 아니더라도 질문을 통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존레논전은 감동 그자체~

송은혜 미래를 생각해 본 값진 시간

서울로 도착한 뒤 지하철을 타기 위해 교통카드도 충전해보고 지도 앱을 깔아서 노선을 확인하고 지하철 타는 법을 익혀서 좋았다. 사실 전에도 몇 번 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잘못 탈까봐 두려웠지만 이번엔 어플의 도움을 받아서 어렵지 않고 재밌었다. 특히 우리나라 지하철은 처음 타보는 사람도 쉽게 탈 수 있도록 잘 되어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시청광장 아이스링크장에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고 해서 가보았는데 아쉽게 우리가 도착했을 땐 끝나고 정리하는 중이었다. 그래도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걷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이화여고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밤공기를 마시며 걸으니 기분이 좋았다. 숙소에도착하니 다들 피곤하고 지쳐서 씻지도 못하고 침대에서 쉬다가 다같이 간식도 먹고 평소라면 하지 못할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다. 그덕에 취침시간이 늦어서 다음날 일정에 차질이 생겨 문화비축기지는 가지 못했지만 망원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먹을거리 볼거리 구경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인생도서관에 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재밌게 활동했던 것 같다.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좋았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 예상 시나리오에서의) 나를 더 알아갈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된 활동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매진 존 레논 전시회를 갔다. 도슨트 김찬용님의 인터뷰를 위해서였다. 김찬용님은 역시 도슨트이다보니 말을 잘하셨다. 나는 그저 존레논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밴드비틀즈의 멤버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의 일생과 가치관, 그가 사회 운동가로서 해왔던 업적들에 대해서 김찬용님이 재치있게 설명해주시고 전시회 기획자의 의도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다. 지금 이 시기에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 이 전시회를 기획한 이유는 평화를 바라는 존레논의 심정을 대변해준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작품 전시 설명이 끝나고 김찬용님과의 인터뷰를 위해 자리를 옮겨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준비한 것에 비해 내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말도 잘 안나오고 인터뷰를 너무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김찬용님의 배려와 재치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아마 나 혼자 인터뷰를 하라고 했었다면 못했을 것 같다. 하지만 친구들과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질문도 해주셔서 도움이 됐다.



이 길이 나의 길이 맞는 걸까요? 휴우~



내 인생은 무슨 프로젝트인가요?



인생도서관 위트릭스 워크숍

찾아가는 활동3

찾아가는 활동 3

- 일 시 : 2018년 12월 22일(토) 오후 3시~5시
- 참여자 : 송은혜, 김소영, 신유라, 최다경
- 장 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층
- 활 동 : 이매진 존레논전 관람, 도슨트 김찬용 인터뷰



도슨트 김찬용

“서양화를 전공한 상태에서 졸업할 무렵에 미술관을 갔어요. 전공자 입장에서든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를 접하면서 ‘미술은 되게 즐거운 건데 왜 전달하는 중간자에 의해서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도슨트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도슨트를 자원봉사 형태로 경험하면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느꼈고, 왜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업적으로도 존중받기 충분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슨트를 직업으로 삼기위해 시작했습니다.”

도슨트 “김찬용”님 인터뷰 섭외 계기?

- 1) 진로에 대해 아직 확실한 꿈이 없는 나는 많은 활동과 체험을 통해 진로를 찾아가고 싶었음.
- 2) 전부터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전시작품을 해설해주는 역할에 매력을 느껴왔고, 그 일이 큐레이터가 하는 일인 줄 착각했지만 두 번째 활동 기획 도중 큐레이터가 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던 일이 도슨트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도슨트와 큐레이터의 차이점을 알게 되고 도슨트를 찾아보다가 “도슨트계의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김찬용”님을 섭외하기로 함.

#도슨트와 큐레이터의 정의

도슨트 :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 (전시해설가)

큐레이터 :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기획하고 작품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

↳ 도슨트=안내인, 큐레이터=관리인

김찬용 님 섭외 전, 자기소개서와 과정

안녕하세요 김찬용님!

저는 김제 덕암고 YMCA 동아리 1학년 송은혜입니다.

저희 YMCA 동아리는 동아리원들 개개인의 꿈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찾고 경험하여 그 꿈을 다시 지역에 드린다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활동하는 프로젝트인 사람책 <꿈, 펼쳐DREAM> 프로젝트는 자신의 꿈에 가깝거나 꿈을 이룬 사람을 직접 찾아가보는 체험활동입니다.

덕암고 YMCA에서 처음 시작하는 프로젝트이고, 김찬용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직접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는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꿈이 없어서 많은 것을 체험해보고 찾아보는 중입니다. 전부터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에 매력을 느꼈었는데 이번 기회에 도슨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희 YMCA 손유주영 선생님의 추천으로 도슨트 김찬용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도슨트의 역할이 큐레이터로 알고 있어서 도슨트와 큐레이터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슨트가 하는 일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고 도슨트계의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김찬용님의 설명도 듣고 싶습니다.

김제지역은 시골에 가까워서 그런 문화생활을 접해보기가 힘들기도 하고, 학생이라 시간을 내는 것도 더욱 어려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작품 전시 해설하는 것을 직접 보고 오고 싶습니다.

다섯명의 동아리 회원들이 각자 다들 관심있는 분야는 다르지만 만나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점들을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잠깐 시간을 내어서 함께 대화를 할 수 있을지도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시험기간이라 12월 14일날 시험이 끝나니 그 이후에 가능한 일정을 알려주신다면 일정 조절을 해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과정

덕암고 YMCA 동아리 2학기 2차고사(2018.12.14.) 이후 서울 방문 계획.

2018.11.30. 송은혜가 자기소개와 인터뷰 요청글을 작성, 연락.

2018.12.06.~2019.03.10. 이매진 존 레논전 도슨트 맡게됨을 앎.

12월 22일(토) 오후3시 전시회 관람 후, 김찬용님 인터뷰 성공!

찾아가는 활동3



작품과 사람을 말하는 도슨트 김찬용

작품과 사람을 말하는 도슨트

누구에게 열려있는 하나의 직업으로 정착되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객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을 설명하는 도슨트(Docent)는 국내 미술계에서 '자원봉사자' 혹은 '안내원'의 서비스 형태 이미지가 강하다. 재능기부로서의 전시해설이 아닌 생계유지가 가능한 '전업 도슨트'라고 자신을 설명하는 김찬용씨를 만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견해와 철학을 나눠봤다.

•보통 도슨트는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다고 알고있다.

대개 도슨트는 생계유지하는 업을 따로 두고 보통은 재능기부형태로 많이 운영된다. 그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도슨트만 업으로 삼으며 생존하는 케이스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전업 도슨트라고 소개한다. 자원봉사 형태의 재능기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처우에 대한 부분에 직업여건이 개선되어 국가적 차원이 아니더라도 국내 미술계에서 인식확장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투자, 교육을 통해 도슨트들을 양성해주셨으면 좋겠다.

•본인의 주관이 섞인 도슨트를 제공하는 편인가.

마크 로스코(Mark Rothko)전시 도슨트에는 철저히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기록된 업적이나 결과물로만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올해로 도슨트 일한지 10년 활동 해오다보니 알베르트 자코메티 전시에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공감력이 생기든, 반감이 생기든 새로운 도슨트를 시도했다. 좋은 피드백이 훨씬 많았고 제 의견을 무작정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하는 형태의 도슨트는 얼마든지 모두에게 좋은 도슨트가 되리라 생각이 들었다. 정보전달도 중요하지만 사상적 고민에 빠지게끔 유도하는 도슨트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오디오 가이드와 뭐가 다르냐' 는 질문도 있다. 나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늘 오디오가이드는 나의 최고 라이벌이라고 생각한다. 도슨트의 가장 큰 장점은 라이브다. 듣는 사람의 연령, 지식 수준, 순간의 분위기에 의해 몰입도를 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이다. 또 직업적 책임감에 관련 작가에 대한 논문이나 분석 글, 인터뷰나 작가노트 등 기획사에서 제공해주는 정보 외적인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말했을 때 도슨트가 더욱 효과적인 것들을 전달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피드백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이셨을 때 도슨트를 맡았던 일이다. 원래 담당 도슨트는 내가 아니었지만 갑작스런 상황에 맡게 됐다. 당시 문재인 의원님은 많은 카메라 셔터에도 아랑곳 하지 않으시고 미술 작품에 집중하시면서 작품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다.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더 편하게, 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피드백도 남겨주셨다. 이 드라마틱한 경험은 이후 내 삶에 실질적인 사건으로 크게 작용한 피드백이 되었다.

도슨트라는 직업으로 협업의 영역을 확장시키다

그는 '도슨트 김찬용'이라는 본인의 브랜드를 활용해 강연활동과 글쓰기 활동 등 다방면 예술 분야에 도슨트라는 직업을 알리는 동시에 미술과 타 예술의 콜라보를 시도하고 있다. 큐레이터가 되는 과정 중 지나가는 직업으로 도슨트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심을 갖고 사람을 좋아하는 누구에게도 열려있는 하나의 '직업'으로서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길 원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같은 장르의 도슨트간의 콜라보와, 미술 강연과 클래식음악의 콜라보 활동으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중심으로 예술가들이 자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과 근무 형태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남다른 열정으로 하루에 3개의 미술관을 돌며 활동했던 그의 열정을 알아봐줬던 주변 사람들과 인연들에게 감사함을 돌리면서 이 직업을 통해 얻게 된 인연을 바탕으로 10년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가진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깊은 애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본다. 직업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할 것인가, 이상을 성취할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는 결국 우리 삶을 스치고 지나가는 많은 직업 들 중 우리가 취사선택해야 할 것이다. 나만의 천직(天職)을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고민일 것이다. 그 질문에 대해 도슨트 김찬용씨의 삶은 바람직한 모델로 읽혀질 것이다.

찾아가는 활동 3



“ 도슨트는
자원봉사 아닌
하나의 직업 ”

도슨트 계기는 무엇인가?

처음에는 서양화 실기를 전공했다. 한 번은 미술관에 갔었는데, 왜 전공자인 자신에게도 미술작품에 대한 설명이 어렵게 느껴질까? 하고 도슨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애초에 그리는 것과는 맞지 않았지만, 미술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도슨트 해보자’하고 시작하게 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전시회는?

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Jumping with Love전’에서 도슨트를 맡은 경험이 있었다. 정치인이라 해서 좀 더 신경쓰려고 하거나 다른 도슨트 진행과 다르게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래도 존경하던 정치인 앞이라 떨리긴 하더라. 그때 이후로 가장 좋은 점은 겁을 먹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가장 최악이었던 전시회는?

‘Sandro Chia (산드로 키아)전’인 것 같다. 그 당시 ‘산드로 키아’라는 작가가 대중들에게는 생소했고, 관람객 수가 저조했었다. 설명을 듣는 관람객의 수가 많아야 전시해설 평가에 쉬운데, 관람객의 수가 적은 바람에 그 전시회와 설명을 평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전에 했던 인터뷰에서 도슨트를 비추천했던 이유는?

전에는 도슨트라는 직업이 직업화가 되어 있지 않았고, 도슨트의 인식자체가 자원봉사하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추천한다. 본인이 좋아하면 해야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잖냐. 그리고 요즘 도슨트의 범위가 넓어지고 비슷한 일들(여행가이드 등등)이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천한다. 도슨트 자신의 노력으로 브랜드화를 시키면 된다고 생각한다.



평화를 노래한 존 레논



해설을 듣기위해 모인 관람객들

“도슨트 범위 넓어지고
비슷한 일 연계성도 높아져
브랜드화 시키면 경쟁력”

“도슨트계의 아이돌”이라는 별명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말이다. 들으면 손발이 오글거린다. 주변에서 놀리는 것도 그렇고, 선호하는 말은 아니다. 아이돌이라고 불릴 나이도 아니고, 아이돌의 장단점을 볼 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막상 실력은 없어 보인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서이다. 그렇지만 요즘엔 그 별명을 이용하고 있는 편이다. (도슨트의 입지를 다지고 넓혀가기 위해서)

찾아가는 활동



비틀즈의 마지막 앨범 애비로드 오마주

전시해설 준비기간은 어떻게 되나?

보통 알바는 한달 전부터 교육을 받고 도슨트 진행을 하고, 본인은 급하게 들어온 경우에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한달 전부터 준비를 하게 되어있다. 요즘에는 1년 전부터 섭외가 들어오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1년인 것도 있다.

말하기 tip은?

일단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타심을 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말하라. 도슨트는 도슨트의 지식보다는 공감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간혹 '~아시죠?' 라고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것처럼 말하는 분들 계신다. 안내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 듣는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고 해버리면 무시 받을까봐, 몰라도 아는 것처럼 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이는 도슨트가 해줄 수 있는 또는 사람들이 더 얻어갈 수 있는 정보를 놓치는 결과를 말한다. 따라서 '~아시죠? 보다는 ~들어보셨나요?' 라고 말하는 방법을 추천하는 편이다.



“발표를 잘 하려면
실패를 두려워 말고
발표경험을 많이 쌓아라”

직업병 있으신지?

아무래도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말이 많아졌고, 빨라졌다. 게다가 관람에 방해된다고 컴플레인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전시회에서는 말을 빨리해야 한다.

발표 잘 하는 방법?

경험이 중요한 것 같다. 사람 다 똑같다, 발표하는 사람들은 다 떨리고 긴장되기 마련이다.

앞으로 발표할 날들이 많아질 텐데, 자신에게 발표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조건 해라. 발표해서 경험을 쌓아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경험들이 쌓이면 노하우가 생겨서 발표를 더욱 능숙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슨트의 인식 변화?

도슨트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긴 하나, 도슨트 협회(등등 각종 도슨트와 연관된)나 모임의 운영진들은 모두 도슨트가 아니다. 도슨트의 인식이나 처우가 개선되려면 도슨트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인 주변의 도슨트들은 각자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본인도 sns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도슨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슨트를 알리고 도슨트의 입지를 다져 도슨트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에 노력하고 있다.

전시회에 오는 아이들에 대한 의견?

사실 전시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진 않는 편은 아니다. 일반화는 아니지만 본인이 해왔던 전시회에서 아이들은 미술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뿐더러 주의 집중력도 낮은 편이라 방해가 됐다.

아이들에게 잘못되었다고 혼내는 것 보다

찾아가는 활동3



김찬용 도슨트님과 존레논의 벽 앞에서 사진

부모들(어른들)이 먼저 미술에 대해 각성하고 어린이도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예술가다”라는 Joseph Beuys의 말처럼 자기가 가진 가치관이나 신념이 예술이 되기 때문에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미술에 대해 각성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도슨트로서 보람을 느낄 때?

전시해설 마지막 그 순간의 사람들의 표정과 눈빛을 볼 때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일의 의미도 같이 깨닫게 된다. 자신의 해설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변화를 이끌어가고 싶다.

김제라는 소도시의 청소년들이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우물 안 개구리 재해석)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될 것 같다. 나는 나만의 우물을 팠고, 끝까지 내 우물을 팠다. 내 우물을 계속 파고들어 사람들을 내 우물로 끌어들이면 된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 행복한 일을 꾸준히 하다보면 인정도 받게 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든든한 친구들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

담당기획 송은혜 글



너무 떨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목소리도 작게 나오고 얼굴은 빨개지고 얼굴이랑 목이랑 귀에서 열이 오르는 게 느껴지니 자신감이 없어 보일까봐 더 긴장을 하게 되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나 혼자 인터뷰 하라고 했으면 아마 울면서 뛰쳐나왔을 것이다. 소감문 작성을 통해서 같이 간 우리 덕암고YMCA 친구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분위기를 살리려 질문을 많이 해준 다경이와 당황하지 않고 묵묵히 인터뷰 내용을 메모해준 유라, 같이 옆에 있어준 소영이와 같이 가지는 못했지만, 우리 동아리회원 유현이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

물론 제일 하드캐리 해주신 손유주영 선생님도 사랑합니다.♥

도슨트계의 아이돌이라는 별명이 괜히 있으신 게 아니었다.

존레논전을 보고 들은 후 김찬용님과 인터뷰를 마치니 막연하고 무지했던 내가 조금이라도 뭐 하나 알아간 것 같았다. 다만 전시회 설명이 끝나면 인터뷰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을 너무 많이 한 게 아쉬웠다.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청심환 하나 먹고 갔으면 좋겠다, 마인드 컨트롤도 하면서.

찾아가는 활동 4

- 일 시 : 2018년 12월 31일(월) 09:00~13:00
- 참여자 : 박유현, 김소영, 최다경, 송은혜, 신유라
- 장 소 : 김제제일사회복지관
- 활 동 : 지역 도시락 준비 및 배달,
최병균 사회복지사 인터뷰



사회복지사 최병균

김제제일사회복지관 과장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예로 든다면 이제는 한명 한명이 프로라는 자신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 확고한 사명감과 소명감이 없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나 문제를 파악하여 이에 맞는 서비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 하기도 한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직업이라 행복하고 뿌듯”

사회복지사를 하게된 계기

처음에는 사회복지사가 뭔지도 몰랐다. 고 3 대학 진학을 고민 하던 중 부모님께서 사회복지사 전망이 좋다고 권유하셔서 대학학과 선택을 사회복지학과로 하게됐다 (전공하며 느낀 것은?)

사회복지사를하면서 좋았던 것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노인복지센터로 대학4학년때 실습을 나갔는데 호스피스병동에서 점심식사보조를 하게 되었다. 노인 두분을 맡았는데 그중 한분이 87세 치매 할머니셨는데 첫날 들어가자마자 막내아들 오셨다면서 엄청 좋아하셨다. 난 특별한 것을 한게 없는데 원래 식사를 하지 않으셨던 분이 나를 보고 막내아들이 돌아왔다며 밥을 드시기 시작한 게 기억에 남는다. 막내아들과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거 같다. 단지 난 내가 누구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했다.



최병균 사회복지사님 인터뷰

최병균 사회복지사님이 하는 일

예전에는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을 단순 노무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회복지사들조차 우리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지

찾아가는 활동4



하나하나 도시락을 준비중인 소영이와 은혜, 유라(왼쪽사진)와 도시락을 직접 배달한 유현.

“확고한 사명감과 소명감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 사회복지사”

금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예로 든다면 이제는 한명 한명이 프로라는 자신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 확고한 사명감과 소명감이 없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나 문제를 파악하여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을 하며 전문성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 하기도 한다.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일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일일이 다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 일하는 범위는 많아졌다 복지관을 예로 든다면 사회복지사로서 사례관리기능(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서비스제공기능(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등), 지역조직화기능(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등의 일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를 하면서 힘든 점과 어려운 점을 뽑는다면

아마 실천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모두 힘들다는 생각을 한 번 이상은 해봤을 것이다. 매 순간순간이 어렵다. 내가 하는 결정이 당사자에게는 상처를 줄수도 있고 당사자의 뜻을 사회복지사 개인의 가치로 막을 때도 있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두 개가 되는 공식처럼 정해진 틀이나 이론만으로 모든 걸 설명하고 당사자 개인들의 모든 상황을 해결 할

사회복지사 최병균 인터뷰

수 없을 때 많은 딜레마를 겪는다. 또한 현실적인 생계를 고민 안할 수 없다.

김제 제일사회복지관에서 만나는 사람들
복지관에서는 장애인말고도 노인분들 청소년 등 그 지역의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거시적으로 넓게 생각해 본다면 정치인 등 모든 지역사회 주민들을 만난다.

김제제일사회복지관에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봉사

무료경로식당, 청소년 봉사단, 도시락 배달, 판도라 봉사대 등 복지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한다.



노인일자리 신청서를 받고있는 다경

주변을 돌아보면 작은 도움이던 큰 도움이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다. 청소년들이 조금만 더 알아보면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스스로 기획해보거나 경험할 수 있는데 덕암고등학교 청소년들도 관심 갖고 참여해봤음 한다. 내가 살고있는 지역과 사람들에 대해 애정과 고민이 생길 것이다.

사회복지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조언이나 당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에 대한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한 내가 선택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해 즐기는 마음을 갖고 즐겁게 일을 하라고 말하고 싶다. 커져가는 사회전반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버리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고민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고 열정을 불사르는 사회복지사가 되길 바란다.

인터뷰를 마치고

‘사회복지사’ 라는 직업 다시보는 기회

담당기획 박유현 글



나의 꿈은 경찰이다. 경찰의 꿈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건 아니고 그냥 ‘오! 하고 싶다’ 이거였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김제 경찰서에서 체험기회가 있었다. 경찰 관련 희생 정신 등 궁금한 걸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경찰차를 타고 직접 시내를 다녀 보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더 경찰이 하고 싶어진 거 같다.

나는 누구에게든 평등하고 따뜻하고 누구의 이야기든 잘 들어줄 수 있는 경찰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봉사활동 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항상 김제 길보른사회복지관에서 토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봉사를 지금도 하고 있다.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내가 복지관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빠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한다고 이야기하셔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거 같다.

하고난 이후 뿌듯함도 남고 남을 돕는 일이 너무 좋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손유주영 선생님과 나누던 중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더 알아가고 기여하기 위해, 도시락을 만들어 소외이웃에게 전달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알아보니 김제제일사회복지관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도시락배달을 한다고 해서 최병균 과장님께 연락을 드려 방문날짜를 정했다.

12월31일 오전 일찍 봉사를 하러갔을 때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셔서 쉽게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역할 분담이 잘됐다. 배달은 2명 가기로 했었는데 선생님이 한명만 가라고해서 나 혼자 가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여러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좋았다. 배달을 하는 중 추운데도 나와서 기다리시는 할머니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께 도움이 된듯하여 너무 뿌듯했다. 다경,유라,소영,은혜는 남아서 노인 일자리구하기라는 프로젝트에 신청서를 받는 일을 했고 끝난 후에 유라,소영,은혜는 도시락 그릇을 설거지했다. 내가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주변에는 이런 독고노인 분들이 있구나, 또 ‘이런 독고노인 분들을 돕는 분들과 기관이 있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주변에 도시락배달을 하는 곳이 있구나.’ 라는 생각, 우리 지역사회에 대해 더 알아 봐야겠다고 느꼈다. 우리지역에서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게 매우 많지만,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과 혜택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관심도 있었고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너무 궁금하기도 했었다. 인터뷰하기 전에는 사회복지사는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인터뷰를 하고 난 후에는 사회복지사가 직업의 일부이고 꼭 노인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러 힘든 사람들을 돕고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담당한다는 전문가라는 걸 알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기획 되어 있다는 것과 각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르다는걸 알게 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해 제대로 다시 보게 되었다.

찾아가는 활동 5

- 일 시 : 2019년 1월 11일(금) 10:00~13:00
- 참여자 : 김소영, 신유라, 송은혜, 최다경
- 장 소 : 전주 / 카페 우에우에테낭고
- 활 동 : 자아성찰워크숍(최재균 상담가, 타로 마스터)
전주 청년몰 탐방

타로로 이야기하는 자아성찰워크숍



찾아가는 활동5



자아성찰 워크숍을 마치고

신유라

버킷 리스트 중 하나 ... 믿진 않았는데도 신기

타로를 전부 해보고 싶었는데 할 시간도 없고 하는 방법도 몰라 못 하고 있었고 버킷리스트 중에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 또 타로를 하고는 싶었으나 한편으로는 별로 믿지 않았는데 해 보니까 진짜 비슷한 부분이 있어 신기하였고 이야기 하기가 수월하였다.

송은혜

각자의 퍼스널 컬러를 알아온 것이 기억에 남아

난생 처음으로 해 본 타로카드였는데 처음에는 재미로 보지 뭐 하는 생각이었지만, 예상외로 딱딱 들어맞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타로카드 시간 이후에 가진 자유시간에는 풍남문도 구경해보고 남부시장 위에 있는 청년몰도 구경하러 갔다. 이른 시간이고 점심시간과 겹쳐서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만 색다른 경험을 하고 왔다. 친구들과 고기도 구워먹고 각자의 퍼스널컬러를 알아간 것이 특히 기억에 남았다. 퍼스널컬러에 대해서 더 알아간 것 같아서 좋았다. 그리고 친구들과 룸카페에서 예쁘고 맛있는 음료를 마시면서 할리갈리를 손이 부서져라 했던 것이 재미있었다.

최다경

타로를 통해 재밌는 추억이 생겨서 행복

타로에 몰입이 되어서 3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타로를 한번 해본 경험이 있지만 딱딱 맞는 게 다시 경험해도 그 부분은 정말 신기했다. 타로를 통해 재밌는 추억이 생겨서 마지막 활동까지 의미 있게 끝낼 수 있어서 행복했다.

손유주영

서로 다름의 특성을 알아가는 과정 뿌듯

뽑은 타로카드를 가지고 나누는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 처음에는 마치 점이라도 보는 것 마냥 안내자를 떠보거나 의심스러운 질문이 많은 모습이 많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빠져들며 서로 다름의 특성을 알아갈 수 있었다. 늘 좋은 일이 생길 수 없고 나쁜 일만 생길 수도 없다. 힘들 수도 있고 벅할 수도 있는 고등학교 생활에서 문제도 답도 자기내면을 잘 들여다보며 이겨낼 수있기를 바란다.

2018년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 **향** 프로젝트

꿈
꿈 펼쳐DREAM